



“에어컨 작동이~”... 하필이면 폭염에

고장 수리요청 전화 하루 100통 수리업체 ‘난감’
음식점은 장사 차질... 가정집은 때 아닌 피서길

제주시내에서 2층짜리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A(63)씨는 지난 12일부터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2층에 설치된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 나 영업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선풍기를 놓아주고, 서비스 안주를 제공해 손님을 달래긴 했지만 수리업체로부터 빠르면 1주일, 늦으면 2주일 가량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무더운 날씨로 인해 에어컨이 수리될 때까지 2층에서의 영업

은 사실상 접어야 할듯 하다”며 “수리업체에 웃돈을 준다고도 했지만, 일정이 많이 밀려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서귀포시 성산을 소재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박모(34)씨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지난 12일 거실에 있던 에어컨이 작동을 멈추면서 지인의 집으로 때 아닌 피난(?)을 다니고 있는 것이다.

박씨는 “5살 미만 자녀가 돌아와 있어 다른 집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

다”며 “수리업체에 연락을 취했지만 접수가 밀려 9일 뒤에 방문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제주에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고장도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수리 작업이 기약없이 밀리면서 많은 이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는 상황이다.

에어컨 수리업체는 냉매로 사용되는 ‘프레온 가스’ 충전과 부품 단종에 따른 수급 문제가 고장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리기사 김경우(61)씨는 “수리를 독촉하는 전화가 하루에 100통 가까이 온다. 한 사람이 여러차례 전화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최대한

시간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지만 평균 10건 정도 수리를 마치면 하루가 다 지나버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수리를 요청하기 전에는 차단기 스위치가 내려져 있는지 확인하고, 기존에 꽂았던 콘센트를 다른 방향으로도 꽂아 봐야 한다”며 “아울러 출시된 지 5년 이상 지난 에어컨은 부품이 단종되는 경우가 많아 수급 때문에 늦어지는 상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력거래소 제주지사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 최대 전력은 96만5000kW를 기록했다. 이는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다.

송은범기자



100년전 제주섬 곳곳에 산재해 있던 1013그루의 노거수가 지금의 제주숲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0년 전 노거수가 제주숲 만들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숲 면적 100년새 3배 ↑
노거수가 어미나무 역할”

100년전 제주의 40%에 해당하는 노거수들이 현재의 제주숲 형성·발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제주 숲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 방향을 마련하고자 100여년전의 고지도인 조선임야분포도를 활용해 숲의 역사와 노거수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지도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100년전 제주도에는 1013그루의 노거수들이 있었고, 주로 600m 이하의 저지대 민가 주변을 비롯한 섬 곳곳에 분포하고 있었다.

이 중 제주시에는 584그루(57.7%), 서귀포시에는 429그루(42.3%)가 분포했으며 성산읍(199그루), 구좌읍(129그루), 제주시(118그루), 애월읍(115그루)에 많은 노거수가 존재했다.

고지도와 현재의 제주 숲지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제주의 숲 면적은 271.2㎢에서 784.2㎢로 약 3배 증가했고, 그 중 40%에 해당하는 405그루가 숲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다. 이 나무들이 오늘날 제주 숲의 형성과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씨앗을 공급해준 중요한 어미나무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최병기 박사는 “오늘날 제주의 숲이 잘 보존되어온 것은 마을 인근과 주변의 노거수만큼은 지키고자 노력해온 제주도민의 오랜 수고와 헌신의 결과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발생되고 있는 제주지역 산림 훼손지 및 병해충 피해지의 복원 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한국전통조경학회’ 6월호에 ‘제주도 노거수 자연유산의 100년 전과 현재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 사흘만에 폭염특보

태풍으로 잠시 수그러 들었던 무더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상청은 13일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 북부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데 이어 14일 오전 10시에는 남부지역까지 이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제9호 태풍 ‘레끼마’의 영향으로 제주 전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된 지 사흘 만이다.

13일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31.2℃, 서귀포 31.5℃, 성산 31.8℃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밤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말도 더위 먹으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13일 구좌읍에서 한 농민이 말들에게 물을 주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이성국 수습기자

해수욕장 인기 하락... 주변 상권 ‘위기’

서귀포권 해수욕장 피서객수 수년새 반토막
위터파크 인기몰이 속 곳은 날씨엔 속수무책

해마다 7월부터 8월까지를 여름 휴가철 ‘피크’라고 하지만 최근 태풍 등 잇따른 날씨 악재와 함께 피서 유형의 변화로 서귀포시 지역 해수욕장이 피서객 감소라는 위기를 맞고 있다.

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 4곳의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2014년 52만여명 ▷2015년 54만여명 ▷2016년 64

만여명으로 매년 50만명 이상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2017년 43만여명을 기록하더니, 지난해에는 21만여명으로 감소하는 등 2016년부터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는 8월 13일까지 17만6340명이 해수욕장을 찾았는데 남은 개장기간 동안 30만명을 채우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해수욕장 피서객 감소

원인으로 태풍 등 잇따른 날씨 악재와 피서 패턴 변화를 꼽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에는 피서기간 동안 제주가 태풍 등 잦은 날씨 악재로 평년대비 피서객이 급격히 줄어든 측면이 있다”면서 “또한 최근 피서객들이 야외 해수욕장보다 리조트 수영장, 위터파크 등을 선호하는 등 피서 패턴이 변화하고 있고 해수욕장 내에서는 서핑 등 레저분야의 피서객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반 물놀이 피서객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해수욕장에 피서객이 줄어들면서

여름 특수를 기대하던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표선해수욕장 인근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2)씨는 “최근 잦은 태풍으로 날씨가 좋지 않아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급격히 줄었다”면서 “이는 곧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로 접어드는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올해 8월 13일 기준 서귀포시 지역 해수욕장 중 피서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중문색달해수욕장으로 9만4200명이 방문했다. 이어 표선해수욕장(4만7920명), 화순금모래해수욕장(2만3040명), 신양해수욕장(1만1180명) 순이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동물테마파크 갈등 격화
지역상생협약서 법정다툼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 추진 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논란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보인다.

(주)제주동물테마파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지난 7

월 26일 선흘2리 이장이 마을 내부의 적법한 협의를 거쳐 상호협약서를 체결했다”며 “마을을 대표할 권한도 없는 반대대책위의 상호협약서 무효 확인 소송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마을을 분열시키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반대대책위는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상호협약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석기자 ik02@ihalla.com

대한민국 광복 74주년

대한민국 광복 74주년을 경축합니다.

“ 민족의 간절한 염원이 태극 물결 이루어 자주독립을 향한 뜨거운 외침으로 대한민국 역사 앞에 우뚝 선 그날의 우렁찬 함성을 기억합니다. ”

JDA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회장 한재익

부회장 부경돈	부회장 김종립	부회장 김관원
총무이사 김형찬	재무이사 고혁진	치무이사 윤영진
법제이사 김보성	공보이사 김도현	보험이사 이민우
학술이사 홍성일	자재이사 정종원	국제이사 이수미
대외협력이사 손우경	정보통신이사 정덕용	문화복지이사 도경은
지역이사 고수현	감사 오정훈	감사 장은식

초대합니다

맹렬 태양 햇살을 받으며 친환경 원단으로 감물들여 제주의 척박한 밭을 일구며 갈웃으로 생활하던 작지않은 밭에서 탐라의 이상이 세계의상문화로 변천하였고, 4·3 그 시절 전통음식을 관광 웰빙음식인 미래의 친환경 식단으로 현재인들이 미각을 변천 시켜서 화해와 상생을 이야기하는 새 시대의 음식문화 시대를 열어가는 제5회 4·3 그시절 감물염색 시연회 및 향토음식 경진대회를 불임과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공감하시고 또 다른 내일을 응원하여 주시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일시 2019년 8월 17일(토) 08:00~14:30

세부계획

- 08:00~10:00 감물염색 시연회
- 10:00~12:00 4·3 그 시절 의상고증사진전시
- 10:00~12:00 향토음식 경연대회(부스 전시)
- 11:30~12:00 개회식**
- 12:00~12:30 향토음식 식사 및 시식
- 12:30~14:30 오찬 -기념공연-
- 14:30 폐식

장소 제주4·3평화공원 (건물 서넛 잔디광장)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

제주4·3희생자유족부녀회 회장 오정희

행사문의처 : (064)756-0500, 010-2598-6113, 010-8661-5742

사립명안방보건의료재단간자적등록 제2014-31520

자적과정 한라대학교 평생교육원 개설

과정명 : 한방약초와 발효효소 (민간자적등록)

자격증명 *한방약초활용관리지도사1급
*건강발효효소전문지도사1급

한방약초활용을 이용한 발효약, 식약청에 등록되어 있는 300여가지 식품을 이용한 건강발효효소 만드는 법과 한방다식 만들기, 꽃법제, 기혈진액효소만들기, 여성, 남성에 좋은 효소한 만들기수업, 기존에 발효음료 만드는 방법과는 다른 첨가물을 이용한 건강하고 올바른 발효음료 만들기 수업이 이루어진다.

인원 20명 선착순 (등록비 30만원)
교육장소 : 제주한라대학교 평생교육원

9월 3일(화) 부터 12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4시간)

■ 수강료할인

- 한라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 : 수강료의 20% 감면
- 계속 수강생 및 복수강좌 수강생 : 수강료의 20% 감면
- 보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 수강료의 20% 감면
- 각급 학교 교사 및 기관단체 : 수강료의 20% 감면(단체 5명이상 등록시 추가 20%감면)
- 가족(부부, 형제자매 등) 등록 할인 : 수강료의 20% 감면
- 우리대학교 교직원 및 직계가족, 재학생 자격인정 프로그램 : 수강료의 30% 감면
- 65세이상 경로우대자 : 수강료의 50% 감면

힐링한방보건의료재단
2년연속 세계명품브랜드 대상 수상

접수 담당자 010-6761-3474
평생교육원 064-741-7595